고문-실종강제 위원회 사법제도 개선 목표로 체포과정부터 피고인 보호 등 억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하며 투명성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 준비

입력 2021.10.12

2021 년 10 월 12 일 (화)에 고문 -실종강제 위원회 사법제도 개선 목표로 체포과정부터 피고인 보호 등 억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하며 투명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씨리파 인타위치안 (Ms. Siripa Intavichein) 민주당의 부대변인은 위팃 만뜨라펀 (Mr. Vitit Muntarbhor) 명예교수와 남태 미분싸랑 (Dr. Namtae Meeboonsalang) 등 인권 전문가들을 고문-실종강제 방지 및 억압 법안 심의 특별위원회 회의에 초대하여 이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대한 흥미롭고 유용한 의견을 내놓았다.

씨리파 부대변인에 따르면 앞선 회의는 법안 섹션별로 심의할 예정이 있으며 태국 형법을 살펴보면 '고문'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모든 측면을 다루려고 '고문'을 정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로 법의 역할은 피해자와 가족을 치유하기 보다는 공직자에 의한 고문이나 실종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할

수단을 갖춘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고문과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체포 후 내부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메커니즘을 만들 법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사용 시행이 필요 하기도 한다. 그래야 안전을 주장하여 정부의 권력으로 인권 및 국제 협약의 틀을 위반한 고문이나 실종강제 시행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편집: 태국하원사무처

번역: 완위몬 마우탑, 태국 하원사무처 외국어 지원사무국

https://web.parliament.go.th/view/1/%E0%B8%A0%E0%B8%B2%E0%B8%9E%E0%B8%82%E0%B9%88%E0%B8%B2%E0%B8%A7%E0%B8%AA%E0%B8%A0%E0%B8%B2%E0%B8%9C%E0%B8%B9%E0%B9%89%E0%B9%81%E0%B8%97%E0%B8%99%E0%B8%A3%E0%B8%B2%E0%B8%A9%E0%B8%8E%E0%B8%A3/81371/parcy/TH-TH